중국 가요시장 휩쓴 달샤벳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제2895호 www.metroseoul.co.kr

올림픽서 '클린 연기' 하겠다

23억 보너스 받으려 '현금 산성' 앞 줄 선 중국 농민들

1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량산주의 한 마을에서 '보너스 잔치'가 열렸다. 이날 이 마을 농촌기업이 춘제(설)를 앞두고 1311만 5000위안(약 23억원)의 현금 배당 행사를 열었다. 회사측은 무게 146㎏에 달하는 100위안짜리 신권 현금다발을 차곡차곡 쌓아 높이 60㎝, 길이 2.6m에 달하는 '현금 산성'을 만들었다. 340여 가구의 주주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각각 1만~30만 위안의 돈다발을 안고 갔다. 중국 농촌에서는 몇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합작해 운영하는 집단농장 기업이 속속 생기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출자한 농토 면적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된다. /로이터 연합뉴스

요즘 주가조작 '몰라서' 당한다

복잡한 파생상품 활용·알고리즘 매매·SNS 동원…수법 갈수록 첨단·지능화

기업 대표 A씨는 파생 상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선물에서 만기가 두 달 이내인 근월물은 가격을 예측하기가 쉬워 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2~3개월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월물(遠月物)은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 매매를 한다면 금방 차액을 올릴 수 있다는 꼬임에 회사 돈을 동원했다. 미국 달러 선물을 먹잇감으로 정하고 주가조작꾼과 메신저로 시간과 액수를 미리 맞춘 후 작전을 벌여 2억원의 '편법 수익'을 손쉽게 챙겼다.

유가·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던 주가조작이 파생 상품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수법이나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공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신상품이 늘고 IT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 방식이 등장하면서 투자자 스스로 금융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증시활황을 기원하는 증시대동제. /뉴시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한 사건은 229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보다는 14건(5.8%) 줄어든 수치다. 반면 파생상품 등의 불법 통정 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10년 5건에서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년째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예전처럼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해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해 일반 시장의 주가조작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살아있는 파생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거의 배제된 전문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로 원금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파생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통정 매매 외에 자동 주문 프로그램인 알고리즘 매매와 금융 당국의 감시망 허점을 악용한 주가조작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작전세력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20~30분 단위로 종목을 옮겨다니면서 시세조종을 하고 차익을 챙긴 경우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부정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문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장은 "신종 금융 상품이 늘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지능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 18만7000원

지난해보다 3.7% 덜 들어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3.7% 하락한 18만7000원가량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가 설을 앞두고 차례용품 7개 품종 29개 품목에 대해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4인 가족의 설 차례상 비용이 18만7710원으로 지난해 19만4950원보다 3.7%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육류를 포함한 14개 품목 가격이 상승한 반면 과일류 등 15개 제품은 하락했다.

차례상 차림에 사용되는 과일 가운데 배의 하락세가 가장 심해 상품(上品) 5개 구입의 경우 전국 평균 비용은 1만6250원으로 지난해 2만원보다 18.8% 하락했다.

시금치 1단은 지난해 3150원에서 2140원(32.1%), 애호박 1개는 1790원에서 1600원(10.6%)으로 각각 떨어졌다.

먹음직스러운 유과 15일 설을 앞두고 충북 보은의 한과공장에서 직원들이 유과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수산물 중 수입산 조기(부세), 북어포 한 마리, 동태포(1㎏)의 구매 전국 평균 비용은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만8690원이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 계란·쇠고기·닭고기 등 대부분 육란류 품목은 올랐지만, 돼지고기(전용, 등심-1등급)만 지난해보다 6.8% 하락한 4780원에 거래됐다.

/정영일기자 prms@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틀 '비정상의 정상화·창조경제·내수활성화' 설정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 쇼핑 등 신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 시장 정상화·임대 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청년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DJ생가 함께 간 영호남 의원들 15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박지원(왼쪽)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담합 죄의식 없는 건설업체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연초부터 입찰담합 문제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으로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더니, 10일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13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공정위가 내사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현장만도 7~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입찰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피해만 없으면 굳이 문제화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인식이 깔린 탓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입찰 제한 등과 같이 건설사 스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건설 관련 규제 완화나 정부 지원 등에 대해 비아냥대는 글들이 넘쳐난다.

입찰담합은 공정사회 구현을 막는다는 문제점 외에도 건설업계 스스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관행이라는 탈을 쓴 악습을 버려야 할 때다.

"반갑습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군사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김한길 친정체제'로…사무총장 노웅래

민주당이 15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개편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노웅래(사진) 대표 비서실장이 내정됐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최재천 의원,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관영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이윤석 의원, 대변인에는 한정애 의원과 박광온 전 홍보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국 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이상직 의원, 당 홍보위원장에는 박용진 대변인이 기용됐다. 공석이었던 최고위원직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정균환 전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다.

김한길 대표의 이번 당직 개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정체제를 구축해 당 혁신을 주도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김관영 대변인은 "전략 라인의 쇄신과 공보 라인의 새 얼굴을 통해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한 후속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영화 '도가니' 제작자 등 안철수 '새정추' 추진위원에

1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8명의 추진위원을 발표했다.

영화 '도가니'의 제작자 엄용훈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혜준씨,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천근아씨, 독립영화감독 최위진씨,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공정규 교수, 로스쿨생 안희철씨, 직업재활 전공 박사 정중규씨 등이다.

서울 여성가구주 100만 육박

서울의 여성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자치구별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분석 조사한 '2013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를 발간했다.

서울의 여성 가구주는 98만 4000명으로 전국 여성 가구주 449만7000가구의 22%를 차지했다. 관악구가 6만7000가구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6만5000 가구주)와 송파구(5만6000 가구주)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여성인구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고, 여성 가구주 비율도 32.6%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에서는 송파구가 67만 명으로 1위였다. 이어 노원구(60만 명), 강서구(57만 명) 순이었다.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고령인구비율이 8.7%로 가장 낮아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32.7%를 차지하는 여성 CEO는 중구에 가장 많았고(2만957개소),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산업 분야는 숙박·음식점업(58.6%), 교육·보건·복지서비스업(44.3%) 등으로 나타났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철도노조 9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 등 철도노조 핵심 간부들이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철도노조 간부 13명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조계사 등지에 피신해 있다가 14일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 각 지역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는 16일 오전 중 결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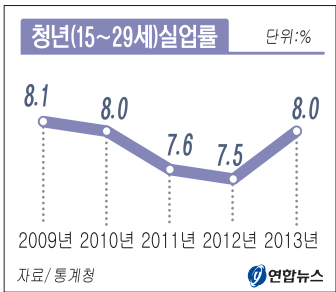
/조현정기자

또 '2030' 울린 '5060'

지난해 청년 실업률 다시 8%대로 … 50대 이상이 고용 증가세 주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8%대에 재진입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8만60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는 198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통계청은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해 취업자가 250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6000명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자영업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 43만7000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셈이다.

50대,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5만4000명, 18만1000명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4만3000명,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379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실업자도 청년층에서만 증가했다. 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1.6%) 감소했지만 15~29세에서는 1만7000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려간 3.1%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도 1622만3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만1000명(0.9%) 늘었다. 이유로는 재학·수학 등(7만7000명·1.8%), 연로(5만4000명·3.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취업 준비자도 5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었고 구직 단념자는 17만2000명으로 2만4000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5만3000명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중국산 곶감 검역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희창물산에서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검역원들이 설을 앞두고 중국산 곶감을 검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계천에 나타난 '북극곰' 15일 오후 청계천에 조성된 북극 빙하와 북극곰 조각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손등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법원, 항소심서 유죄 선고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검, '에이미 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15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58분께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jkim@

3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통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15일 남북나눔·섬김·겨레사랑 등 3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지원 대상은 황해북도 봉산·황주·신원 등지의 영유아로, 영양 빵 재료와 분유, 내복 등 4억2500만원 상당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신청 단체들에 대해 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시민불편 살피미 우수구 선정

서울시 성동구가 '120 시민불편 살피미 우수구'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구는 15일 서울시 평가 기준의 처리 실태(신속성·충실성), 시민만족도, 참여노력도(운영체계·특수 및 우수 사례·홍보 실적) 중 민원 처리 실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자체 민원처리 종합 평가를 통해 분석, 행정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노인 자립기반조성 사업 공모

서울시 영등포구가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 또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노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추진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6~24일이다.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2~23일 구청 지하 1층 아트리움에서 '설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전남 무안군·전북 진안군·경남 함안군 등 10곳의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품질을 보증해 추천한 과일류 등의 제수용품과 수산물 가공식품 및 그 지역 농·특산물 등을 판매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서정시인 박목월 출생

'북에 소월, 남에 목월' … 정지용

청록파 시인 박목월이 1916년 1월 16일 경주에서 태어났다.

사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전화 정지되니 0번을 누르세요”

KT사칭 보이스피싱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0 정부 민원안내콜센터’가 접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분석 결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KT 사칭에 따른 피해 상담이 6168건(36.7%)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KT를 사칭한 자동응답전화(ARS)를 받고 “오늘부터 전화가 정지되니 자세한 문의를 위해 0번을 누르라”는 지시대로 따랐더니 “070 인터넷전화 미납 요금 27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다.

이어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총 2147건(12%), 즉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피해가 1288건(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권익위가 접수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1만6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8.4% 줄었지만, 피해액은 23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윤다혜기자

“엄마야!” 이런 고통은 처음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제9공수 특전여단에서 열린 ‘동계 특전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화생방 훈련 체험을 한 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 또 신중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실시된 예술디자인대학 정시모집 실기고사에서 학생들이 현대미술전공 ‘인체색채소묘’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갑질 이어 73억 탈세까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기소…25억 워홀 작품 타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만여 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여 원 등 모두 73억7000만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경희사이버대 푸엣 교수 임용

마이클 푸엣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경희사이버대 교수로 임용됐다.

경희사이버대는 14일 푸엣 교수를 첫 번째 인터내셔널 스칼라(I·S)로 임용해 1년간 공동 학술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내셔널 스칼라는 해외 우수 교원 초빙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수방사 ‘1·21 사태 상기 행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1968년 북한이 수도 서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1·21 사태 상기 대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리멤버 1·21 사진 전시회’와 직접 무장공비들의 침투로를 걸어보는 ‘나라사랑 걷기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두 행사 모두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및 참가가 가능하다. 문의: 02)524-1111

소방방재청, ‘정전기 화재’ 전국 주유소 안전점검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주유소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방방재청이 전국 1만588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의류와 시트에서 마찰로 일어나는 정전기는 순간 전압이 1만5000~2만 볼트로 휘발유를 점화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주유소 직원은 방전복을 입거나 정전기방지용 분무액을 옷에 뿌리고, 셀프 주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전기 방전 패드를 접촉하고 주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윤다혜기자

삼성家 맏형의 통큰 화해 제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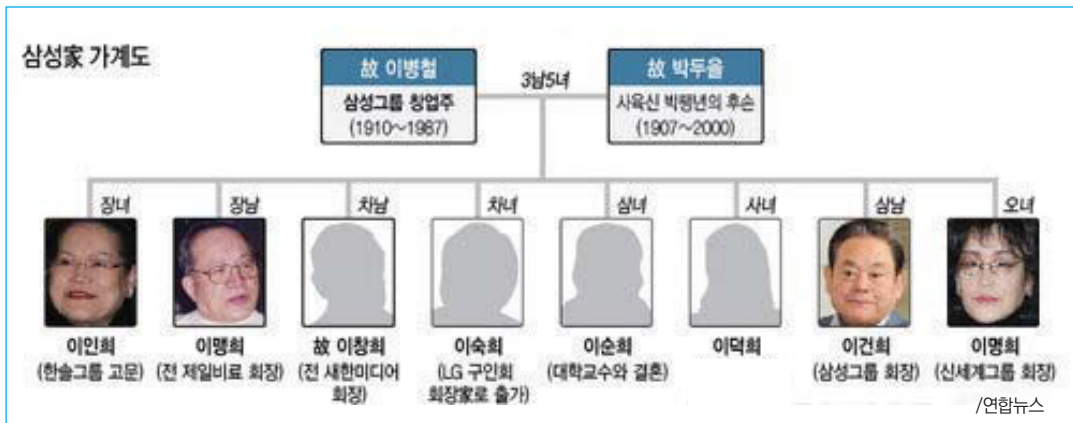
'상속소송' 건 이맹희씨 항소심서 조정 뜻 비쳐 이건희 회장 측선 거부 "본질은 경영권 정통성"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 분쟁 소송 중인 이맹희씨가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화해하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맹희씨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청구 전부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청구 일부를 철회했다. 다만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 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 주, 배당금 5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9400억원 규모의 청구 취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대리인은 "삼성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했다"며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지 않아 상속원주에 대한 주식 인도 청구만 남기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청구는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사실상 이맹희씨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삼성 측은 이맹희씨의 제안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닌 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판결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 소송의 항소심 최후 변론을 마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오른쪽) 변호사와 이맹희씨 측 소송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 판사에게 보낸 이맹희씨 서신 전문

건희와 두손 잡고 응어리 풀었으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공인으로서 집안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며 진솔한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게나마 소회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남 의령 농가에서 몸을 일으켜 삼성그룹을 창업한 아버지는 우리 7남매에게 너무나 위대하면서도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세운 삼성가 집안의 장자입니다. 삼성맨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황무지를 뛰어다니며 한국비료공장, 제일제당 공장, 삼성코닝, 삼성전관,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오랫동안 삼성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역할이 커지면서 아버지 의견에 대항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버지 의견에 반항하며 저의 생각이 회사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일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철두철미한 분이셨고, 삼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조직이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소군과 가족들로 구성된 승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주셨을 뿐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삼성이라는 조직을 끌어나가기보다는 가족 간의 우애와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화목하게 공생하며 살라는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방황할 때도 가족은 끝까지 저를 책임지고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가족에게 너무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하면서 조카들과 형수는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열한 살이나 어린 막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삼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줬습니다.

타지 생활의 유일한 기쁨은 재현이가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건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늘 고마움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한 일들을 나중에야 알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생만을 믿고 자리를 비켜줬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엉크러져버린 집안을 보면서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복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만날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건희를 보면서 동생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家의 장남 이맹희씨.

> 너무나 위대하셨던 내 아버지 이병철 유언도 없이 하늘로
>
> 믿어 달라던 동생 결국엔 내 뒤통수 아들 재현의 회사 수시로 방해하기도
>
> 꼬여가는 가족사 암세포 번져가는 늙은 몸 끌고라도 동생 만나고 싶어

그러던 중 삼성으로부터 상속 포기하라는 서류 1장을 받게 되어 저 자신의 권리와 건희와의 관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재판이라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이가 삼성으로부터 독립할 때 미행을 하고, CCTV로 감시하고, 제일제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장손의 할아버지 묘사도 방해하고, 대한통운 인수하는 데 뛰어들어 방해하고, 이 재판이 시작되자 다시 재현이를 미행하고, 대한통운의 해외 물량을 빼는 등 그동안 건희가 조카에게 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열하는 것이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 재판 도중에 저는 건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고 저도 돈 욕심이나 내는 금치산자로 매도당하는 와중에도 이 재판이 끝나면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라 저로서는 굴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화해를 통해서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건희의 절대 화해 불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제안한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성사되더라도 과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가야 하는 길은 건희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제 나이가 83세이고 재작년에 폐암으로 폐의 3분의 1을 도려냈으며 최근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특별한 타입의 제 암 씨앗은 지금도 혈액을 타고 전이할 곳을 찾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며 시한부 환자처럼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죽음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난하며 말하는 '노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릴까 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사죄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과 아버지 유지조차 지키지 못한 장자로서는 죽어서 아버지 뵐 낯이 없습니다.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로 두 눈을 편히 못 감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화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희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입니다. 10분 아니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와 건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기 전에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일본 타지의 외로움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지내온 가족입니다.

이제 '해원상생'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어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삼성가 장자로서의 마지막 의무이고 바람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저의 진정성이 조금이나마 전달됐다면 노욕을 부리고 있는 이 노인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진정한 화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이맹희

현 총리 퇴진시위 태국 전 총리 자택서 폭발물

태국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야권 지도자의 자택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말레이시아 영자지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의 자택에 누군가 폭발물을 던졌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현지 경찰은 "폭발로 지붕 일부가 훼손됐지만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현장 조사 결과 폭탄은 아니었고 규모가 큰 폭죽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정부 시위대는 방콕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도로를 봉쇄하며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5일 반정부 시위단체 중 하나인 태국개혁학생국민네트워크(STR)는 잉락 총리가 즉시 퇴진하지 않으면 항공교통관제공사와 태국증권거래소(SET)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항공교통관제공사는 태국 영공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 관계자는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하루 2000여 대라고 밝혔다.

찻찻 씻티판 교통장관은 STR가 항공교통관제공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면 테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미기자

metro Peru

수륙 양용 관광버스

페루 수도 리마에 관광객을 위한 수륙 양용 버스가 도입된다.

버스회사 '미라부스'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수륙 양용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는 미라플로레스에서 카야오까지 지면 도로를 이용하고, 카야오에서 찰라코 바다를 왕복할 때는 물 위를 달린다.

미라부스의 사장인 에드가르드 레아뇨는 "카야오에서 출발한 버스는 산로렌소섬, 엘프론톤, 그리고 라 푼타를 잇는 코스를 1시간30분 안에 주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운행할 수륙 양용 버스 후면에는 터보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물속에서의 운항을 돕는다.

이 덕분에 버스는 바다에서 최고 시속 20km를 낼 수 있다. 또한 버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돼 있으며 구명조끼도 구비돼 있다. 탑승 정원은 40명이다.

회사 측은 이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당국에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리=조선미기자

호주는 요즘…"더워도 너무 더워"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를 찾은 팬들이 15일(현지시간)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경기를 치르던 선수들이 어지럼증과 일사병 증세를 호소하는가 하면 몇몇 볼보이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멜버른 일부 지역에서는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출퇴근길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졌다. /AFP 연합뉴스

부패 척결, 손목 잘라내듯!

시진핑, 中 기율위 참석해 사정 '채찍질'…부패 군 장성 집서 순금조각상 등 트럭 4대분 압수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깎아내고,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를 갖고…."

집권 이후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단호한 표현을 쏟아내며 다시한번 반부패 투쟁 의지를 밝혔다고 15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시 주석은 당이 지난해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급관리)를 함께 잡는다'는 자세로 성과를 거뒀지만 "부패가 자생하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반부패 형세는 엄준하고 복잡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에 대한 처벌 자세를 유지하고 지난달 발표한 '철저한 부패 처벌·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공작계획'을 강력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공작계획에서 "당기율과 국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아무리 지위가 높을지라도 당기율과 국법을 위반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관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상무위원 전원과 정치국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 당정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2012년 1월 부패 혐의로 면직된 구쥔산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의 부패 사실이 최근 추가 폭로됐다.

홍콩 언론들은 중국 경제매체 재신을 인용, 중국 검경이 2012년 1월12일 구 전 부부장의 고향 집을 수색해 압수한 재물이 트럭 4대분에 달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물건 가운데는 순금으로 만든 마오쩌둥 조각상과 금으로 만든 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위 관료에게 특별히 공급되는 '특공' 마오타이주의 압수 분량은 트럭 2대분에 달해 경찰 20여 명이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3년전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이…

알고보니 병원직원 정자로 태어나 관리감독 책임 미FDA에 비난 빗발

23년 전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이 남편의 정자가 아닌 병원 직원의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미 사망했지만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NN·AP 등 미국 언론은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이 최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23세 된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 존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1년 인공수정으로 딸을 낳았을 때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 토머스 레이 리퍼트의 유전자가 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런데 이 병원이 1992년 문을 닫았고 리퍼트는 1999년 사망했다.

특히 리퍼트가 납치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인데도 병원에서 일했고 인공수정을 하러 온 다른 여성 환자의 난자에도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딸이 자신의 피붙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인 존 브라넘은 "이번 일로 딸과 더 가까워졌다"면서 "딸을 사랑한다. 애니는 언제나 내 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멜라는 "당시 병원 측의 인공수정 시술 과정 관리가 소홀해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리퍼트의 씨를 받아 생긴 아이가 100명도 넘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등 의료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미국연방식품의약국(FDA)과 유타주 정부 보건국, 검찰 등에 비난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주 정부와 연방 검찰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도 넘은 '임무'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임무(Duty)'가 14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서점에 수북이 쌓여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재임 기간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내부 논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 성향을 거론하며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기술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AFP 연합뉴스

AIG손해보험 60주년 | AIG상품관리 제13-DM186호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023호(2013년 08월 19일)

Daum AIG

부모님 살아계실 때 힘이 되어 드려야지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죠?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1 **치매간병비 II(중증치매)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선택계약2 **7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보장**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선택계약3 **질병입원일당 첫날부터 2만원**(180일 한도)

선택계약 4,5,6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각 2백만원**(최초 1회한)
- 암 진단비 II: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 약관에 정한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연령 **50~75세 가입**

명품부모님보험 (2K013)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상해1급 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선택계약 2,3,4,5,6은 최대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1644-9896

기본계약 (1인당, 단위:원)			선택계약1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II(중증치매)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89세	11,530		50세	620	1,650
			60세	3,380	8,020
			70세	19,690	40,020

선택계약2			선택계약3		
7대질병 수술비			질병입원일당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세	180	90	50세	10,130	7,390
60세	300	180	60세	15,040	10,740
70세	470	350	70세	22,400	17,230

보장내역	연령	남자	여자
선택계약4			
암 진단비II	50세	2,000	2,470
	60세	4,100	3,010
	70세	7,220	3,530
선택계약5			
뇌졸중 진단비	50세	1,020	730
	60세	2,720	1,730
	70세	5,340	3,220
선택계약6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50세	270	80
	60세	530	180
	70세	750	400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만 조심해야 하나요? 보험료도 신경쓰셔야죠!

기본계약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1 **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선택계약2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선택계약3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304 (L202)

- 가입연령 : 15~6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 5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연령증가와 요율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은 최대 90세까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8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가입 문의

1577-6429

월 보험료(1인당)

기본계약 (1인당, 단위:원)			선택계약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의료비용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89세	13,230		30세	1,440	4,340	600	360	500	180
			40세	4,060	9,760	1,760	880	1,020	360
			50세	9,800	11,220	4,460	3,100	1,760	72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840	1,616	0.7%
3년	722,520	29,244	4.0%
5년	1,204,200	-	0%

*예시기준: 상기 플랜 가입시, 최초계약, 5년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기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 청약철회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시 가입 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보장개시일 :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또는 신용카드·계좌 정보고지 후부터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구성은 가입하시는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보장내용은 증권 및 청약서를 참조 • 기보험 해지 후 신규 가입시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상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가입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혹은 홈페이지 참조 www.aig.co.kr

(H_BC_Metro_140113)

AIG

더 좋은 내일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1953.28 (+7.21)

코스닥 515.97 (+3.70)

금리(국고채 3년) 2.91 (+0.01)

환율(원·달러) 1062.50 (+3.50)

뉴스&뉴스

한국 펀드 규모 '좁쌀펀드'

●한국 펀드 수는 세계 1위이지만 펀드당 굴리는 돈은 '꼴찌'를 면치 못해 외형 성장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국내 펀드 수는 총 9857개로 전 세계 46개국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펀드당 순자산 규모는 2860만 달러(약 303억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현정기자

성장률 3.8% 고용가중땐 뚝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3.8%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가중 성장률은 3.4%에 그칠 전망이다. 고용가중 성장률이란 산업별 고용 인원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성장률을 말한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과 고용가중 성장률 두 수치 간의 격차는 0.4%포인트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2011년에는 성장률이 3.7%, 고용가중 성장률이 3.2%로 0.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김민지기자

개인연금 고령 가입률 5.7%

●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2012년 개인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자는 800만 명(15.7%)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률이 5.7%에 불과했다. 개발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노후연금이 과거 소득의 70~8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3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213295
		4조	43731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50207
4등	100만원	각조	93673
5등	2만원	각조	527
6등	2000원	각조	05,95
7등	1000원	각조	3,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GM·포드…미국차 살아있네

2014 북미 국제오토쇼…신차·콘셉트카 화려한 행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13일(현지시간) 개막한 2014 북미 국제 오토쇼는 되살아난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때 분위기가 침체됐으나 이번에는 참가 업체들이 앞다퉈 신차와 콘셉트카를 내놓으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번 모터쇼에서 **GM**은 콜벳의 고성능 버전인 Z06를, 포드는 신형 머스탱을 내놓으며 스포츠카를 부각시켰다. 콜벳 Z06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탄소섬유 차체, 최고 출력 625마력의 V8 6.2ℓ 직분사 슈퍼차저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으며, 2015년부터 북미 시장에 판매된다.

GM은 캐딜락 최초의 콤팩트 럭셔리 쿠페인 ATS 쿠페도 공개했다. 최고 출력 272마력의 4기통 2.0ℓ 가솔린 터보엔진과 321마력 6기통 3.6ℓ 엔진이 탑재됐으며, 후륜 구동과 4륜 구동 2가지 모델이 나온다.

크라이슬러는 대형 세단 300C 아래에 자리하는 중형 세단 200C를 공개했다. 알파 로메오의 섀시를 베이스로 한 200C는 동급 최초로 로터리 변속 노브가 적용된 9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출력 295마력, 토크 36.2kg·m의 V6 3.6ℓ 펜타스타 엔진 또는 출력 184마력, 토크 23.9kg·m의 직렬 4기통 2.4ℓ 엔진을 얹었으며, 크라이슬러 중형 세단 중 처음으로 패들 시프터도 장착됐다. 이 차는 올해 연말께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아우디 올로드 슈팅 브레이크.

메르세데스 벤츠 GLA.

독일 업체 중에는 **아우디**의 '올로드 슈팅 브레이크'가 눈에 띄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체에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이 차는 최고 출력 408마력을 자랑한다. 2.0ℓ 가솔린 TFSI 292마력 엔진과 전기모터 2개를 듀얼 클러치가 연결하는 구조다. 53마력의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고, 또 하나의 모터는 뒤 차축에 장착돼 저속에서 차체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우디는 완성도 높은 이 차를 곧 양산할 전망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A 45 AMG를 처음 공개했다. A클래스의 크로스오버 버전인 이 차는 BMW X1의 경쟁 모델이다. 직렬 4기통 2.0ℓ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360마력으로 앞바퀴를 굴린다. 최근 국내에는 CLA 45 AMG가 소개됐으며, GLA 45 AMG의 한국 상륙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닛산은 '스포츠 세단 콘셉트'를 내놨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차세대 맥시마'로 지목받은 이 차는 그릴에서 후드까지 연결되는 V-모션(V-Motion) 디자인으로 역동성을 높였다. 독특한 플로팅(floating) 지붕은 전통적인 세단의 캐빈형 지붕과 달리 개방성과 가벼운 감각을 선사한다. 전륜 구동이며, V6 3.5ℓ 엔진과 스포츠 튜닝을 거친 엑스트로닉 CVT를 탑재해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낸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GM콜벳 Z06

건설사 이번엔 '4조5000억 회사채' 폭탄

올 상반기 만기 규모 급증

그간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였던 미분양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회사채'라는 또 다른 뇌관이 떠오르고 있다.

◆신용등급 떨어져 차환발행 막막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상장 건설사가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5482억원이다. 작년 동기 4조1070억원과 비교해 10.7% 증가한 금액이다.

비상장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이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순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 무려 4곳이 상장되지 않았다.

실제 롯데건설이 올 한 해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500억원이고, 한화건설도 올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와 은행권 부채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외 GS건설과 동부건설, 두산건설이 상반기에 각각 약 5000억원, 1100억원, 2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2월 3500억원, SK건설은 3월 18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데다, 건설·주택 시장 침체로 A등급마저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등 궁리

차환 발행이 막히면서 건설사마다 회사채를 갚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궁리 중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회사채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갚기로 했다. 롯데건설도 상반기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자산 및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한진중공업도 인천 율도, 동서울터미널 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자산이 팔리지 않거나 내다 팔 자산조차 마땅치 않은 회사들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실상 은행 차입금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또는 그룹 계열 건설사는 회사채 차환 어려움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와 위험이 크지 않지만 중견 건설사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지막 회사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한국인 평균 상속 재산

920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이 9000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000명의 총 상속 재산은 26조5374억원이다.

평균 상속 재산은 9200만원이었다.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억2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고시' 이젠 벼락치기 안통한다

삼성그룹 채용제도 전면 개편…대학 총학장 추천전형 도입

삼성그룹이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삼성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일던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축소하고, '찾아가는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국 모든 대학의 총학장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추천권을 부여하고, 서류전형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은 15일 "열린 채용과 기회 균등의 채용 정신을 살리는 한편, 입사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 총학장 추천제 도입

삼성은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찾아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대학에서 평소 학업과 생활에서 인정받는 우수 인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채용제도로 개편한다.

우선 '찾아가는 열린채용'을 도입한다. 현장으로 찾아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수시로 지원 기회를 제공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열린 채용' 및 '기회 균등 채용'의 정신을 살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총학장 추천제를 도입한다. 전국 모든 대학의 총학장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서류전형 도입

삼성은 서류전형제도를 도입해 SSAT의 의존도를 낮춰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학연수 여부,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등 전문성과 무관한 '보여주기용 스펙'이 아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열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준비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하는 서류전형은 직무 전문성과 인재상 중심의 서류면접 수준의 전형으로 운영된다. 입사지원서는 세부 학업 내역, 전문 역량을 쌓기 위한 준비 과정과 성과, 가치관 평가를 위한 에세이 작성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는 전공과목 성취도 등을, 인문계는 직무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서류전형만으로 변별이 어려운 경우 프리인터뷰나 실기 테스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저소득층 채용 할당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개편

삼성은 SSAT에 종합적·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을 확대해 종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가 고득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 집중 학습자의 반복 연습에 의한 학습 효과를 배제하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가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상식 영역은 인문학적 지식, 특히 역사와 관련된 문항을 확대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지닌 우수 인재가 선발되도록 추진한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박용기 인사팀장의 채용제도 일문일답

Q. 찾아가는 열린 채용 방법이란.

A. 전국 30여 개 대학에 연중 수차례 찾아가 현장에서 선배들(임직원)이 면담과 설명을 할 예정이다. 사전 인터뷰라고 보면 된다. 1차 희망서, 면담서 등으로 서류전형을 대체하는 것이다. 연간 3회 내외로 학교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Q. 총학장 추천제 학교별 TO는 어떻게 배정하나.

A.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여 개 있다. 이를 통해 5000명을 추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별 TO는 전공별 규모, 과거 입사 실적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

Q. 서류전형 기준은.

A. 학교는 전혀 안 본다. 평상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볼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지원자의 경우 ▲평소 대학 생활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마케팅 관련 과목 수강여부 ▲성적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참가여부 등 서류를 통해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격증, 해외 연수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 쌓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Q. 직무적성검사 시기는.

A. 현재와 동일하게 상·하반기 한 번씩 볼 것이다. 신입 공채는 일 년에 두 번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Q. SSAT는 어떻게 바뀌나.

A.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4개 영역에 공간지각능력 측정 영역을 추가할 계획이며,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학원을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기출 문제를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겼다. 그러나 서류전형을 사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류전형은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직무 영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 권오준·김진일 등 5명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확정한 후 사외이사 6명으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부 인사로는 권오준(64) 포스코 사장, 김진일(61) 포스코켐텍 사장, 박한용(63)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정동화(63)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4명이며 외부 인사로는 오영호(62) 코트라 사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CEO추천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자격심사를 벌여 단독 후보를 결정해 2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추천할 방침이다. 차기 회장은 3월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국내 소비 부진한 건 소득·고용 불안 때문"

최근 국내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 불안 등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 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소비가 부진하다"며 "이는 현재와 미래 간 시간선호가 달라지면서 현재 소비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서 기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 불안 지속 ▲은퇴 후 고령층의 주된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 제기 등을 꼽았다. /김민지기자 minji@

와인도 설빔 입었네 15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설을 맞아 한복와인커버를 씌운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한복와인커버의 종류는 궁중세트, 혼례세트 등 총 4가지로 가격은 6만원부터 9만원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대기업 대졸 신입 3만902명 뽑는다

올해 채용 계획 조사

올해 국내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정유·화학의 채용 규모는 조금 늘지만, 건설과 섬유·제지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이 3만9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만1372명보다 1.5%가량 감소한 수치다.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은 127.2명으로 지난해(129.1명)보다 1.9명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500대 기업 중 322개사가 응한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94개사(60.3%),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49개사(15.2%)였다.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79개사(24.5%)에 달해 올해 대졸 일자리 규모는 이들 기업의 채용 계획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유통·물류'(2.9%) '정유·화학'(2.7%) 업종에서는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0.9%), '자동차'(-1.6%) 업종을 비롯한 다수 업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건설'(-13.8%) 업종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 규모별로 매출 최상위 30대 기업과 101~200위 기업의 채용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30대 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10개사의 올해 채용 인원은 2만219명으로 작년 2만189명보다 0.1% 늘어났다. 101~200위 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48개사도 지난해(2300명)보다 1.1% 늘어난 2326명을 뽑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은 아직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며 채용 규모를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500대 기업의 당초 채용 계획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 77.0%의 기업이 계획대로 채용했고, 14.0%의 기업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확실한 신호만 들어온다면 올해 대졸 일자리 시장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난 스마트폰 중독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 피해를 겪는 직장인도 절반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487명에게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질문한 결과, 61.6%가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은 11.5%, '완전 중독된 수준'은 1%로 나타났으나 '전혀 관계없는 수준'은 25.9%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직장인도 58.7%에 달했다.

구체적인 업무 지장 내용으로는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다'(51%, 복수 응답)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근무 자세 등이 나빠졌다'(25.9%), '수시로 업무 확인 등 업무 시간이 늘어났다'(19.9%), '인간관계에 소홀해졌다'(12.9%) 등을 호소하는 직장인도 있었다.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81.7%는 평소 뚜렷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갈증 나는' 근무시간

직장인 '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남녀 직장인 76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하루 물 섭취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갈증을 자주 느낀다는 대답이 64.4%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인 40.6%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루 마시는 양은 평균 5.5잔으로 하루 권장량인 10잔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하루 평균 5.3잔으로 물 섭취량이 가장 낮았으며, 40대가 평균 6.1잔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50대 이상은 평균 5.6잔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 습관'이 45.8%로 가장 많았고 '커피, 이온음료 등 다른 음료에 익숙해져서'(34.6%)가 뒤를 이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17.3%), 마실수록 허기가 져서(1.3%)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국명기자

거품? 후려치기? '애매한 윈도'

issue&view

MS-PC방업계 힘겨루기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그간 불법 사용해 온 OS 합법 이용 방안 'GGWA·렌털' 가격 놓고 씨름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PC방 단체들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MS의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를 합법적으로 쓰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PC방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의 PC방 업주 모임들이 MS를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 위임장을 받고 있다.

업주들이 '뿔난' 이유는 윈도 구매 가격이다. 그간 OS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을 인정하지만 MS가 요구하는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MS는 두 가지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정품으로 전환할 때 쓰는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와 공공장소에서 한 대의 PC로 여러 명이 쓸 때 적용하는 '렌털'.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면 28만원가량이 드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가 대비 2배 정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이용' 딱지를 떼려면 두 가지를 모두 구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이중 과금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윈도XP 지원 종료 이슈가 맞물리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새 OS를 사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MS의 입장도 단호하다. 윈도가 들어간 PC로 영리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오랫동안 OS를 공짜로 써왔던 업체들이 유료 구매를 빌미로 가격을 이른바 '후려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당 최대 30만원에 육박하는 라이선스 비용도 과하지 않다는 게 MS의 주장이다. MS 관계자는 "최근 PC방은 예전과 달리 500대 이상의 PC가 설치된 '기업형' '프랜차이즈형'이 많다. 생계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PC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규모 PC방의 경우 영세성을 감안해 단속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C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생소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게임도 무료로 내려받은 뒤 부분 결제를 하는 수익 방식이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했을까.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상황에서 제작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모바일 게임을 콘솔 게임처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게임패드(모델명 EI-GP20)와 최고급 무선 스피커(모델명 EO-SB330)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패드는 102~160㎜(4~6.3인치) 크기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된다. /삼성전자 제공

가입자 급증에도 '가난한 알뜰폰'

기간통신사업자에 내는 돈 가입자 늘수록 커져 '적자'

알뜰폰(MVNO) 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2년 12월 말 126만7666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248만1531명으로 1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났다. 매출 역시 2012년 12월 말 1190억원에서 2013년 12월 말 24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뜰폰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가입자가 급증하고 매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업계에선 알뜰폰에 가입하는 이들이 대부분 2세대(2G)나 3세대(3G) 피처폰을 선호하고 통화량도 적은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을 살펴보면 LTE 가입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85%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2G, 3G 가입자인 셈이다. 또한 기본요금 2만원 이하 가입자도 전체의 74%에 달했다. 결국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도 2만2000원대에 머무르며, ARPU가 3만원대 중반인 이동통신 3사에 비해 크게 낮았다.

다른 알뜰폰 업체 역시 마찬가지. 특히 후불 요금제 가입자가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지만, 선불 요금제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업체는 이용자들이 늘더라도 이들의 이용량이 적을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돈만 늘어나 적자폭이 커지는 기현상도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최근 잇따른 언론 보도로 인해 수익을 크게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면서 "다만 가입자 급증과 ARPU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쯤 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NAS 점유율 '세계 1위' 시놀로지 새 버전 공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방대한 공간을, 하지만 개인이 따로 보관할 수 있어 보안과 휴대성이 뛰어난 저장장치 NAS(Network Attached Storage)가 대중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세계 NAS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시놀로지는 15일 NAS 운영체제 최신 버전인 DSM 5.0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최근 IT기기 화질 향상에 맞춰 울트라HD와 레티나 스크린에 최적화해 설계됐다.

NAS는 인터넷에 연결된 저장장치를 뜻하며, 이 장치를 쓰면 사용자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용하듯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어디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LG전자, 버팔로, 넷기어 등의 업체들이 경쟁 브랜드로 꼽힌다.

이날 소개된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해 NAS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고화질로 전송해 감상할 수 있다.

시놀로지아·태지역 영업 매니저인 마크 홍(사진)은 "한국 시장에 2003년 진출한 시놀로지는 2012~2013년 연간 75%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네이버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도 2007년과 견줘 8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2014 새해맞이 19일간의 특별할인

말띠할인가 10,000원 | 평일할인가 12,000원

주말조조할인가 12,000원 | 주말할인가 15,000원

+경고! 웃다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극

라이어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부동산&건설단신

서울 속 미니신도시…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신도시급 복합개발단지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오는 2월 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옛 육군 도하부대 부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연면적 70만㎡ 규모로 아파트 3203가구와 오피스텔 1165실을 비롯해 호텔, 대형마트, 초등학교, 경찰서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1차로 아파트 1743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59~101㎡, 장기전세 시프트를 제외한 1560가구가 일반 분양 몫이다.

1호선 국철 금천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가칭)도 근처에 들어선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2016년 준공 예정) 등의 도로망을 이용 가능하다.

손승익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중소형 아파트가 94%를 차지하고 있고, 금천구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던 터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승인받은 3.3㎡당 1488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춰 1300만원대 중반대로 책정키로 했다. 2월 1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2순위, 14일 3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금천구 독산동 424-1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2016년 11월 입주 예정. 분양 문의: 02)868-1616

/박선옥기자

교통·환경·가치 3박자 갖춘 '삼송 동원로얄듀크'

중소형 주택의 공급 증가로 면적을 넓혀 갈아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동원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서 공급한 '삼송 동원로얄듀크'가 눈길을 끈다.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지상 17~21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6㎡, 전체 598가구로 이뤄져 있다. 편리한 교통망, 쾌적한 주거 환경, 미래 가치 등의 삼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서울 주요 지역과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7분 거리다. 또 현재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GTX,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20분이면 연결 가능하다.

인근으로 2만여㎡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위치했고, 단지 3면이 자연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과도 어우러져 친환경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주변 대형 상업시설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삼송지구 내 삼송역 일대 백화점·명품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계획됐고, 주변 은평뉴타운에는 롯데타운이, 원흥지구에는 세계적인 유통업체 이케아 2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문의: 031)711-0002

/박선옥기자

3.3㎡당 700만원대 분당 생활권 '오포우림필유'

우림건설이 경기도 광주에서 '오포우림필유' 아파트를 특별 공급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3층, 전용면적 84㎡, 전체 1028가구 규모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돼 3.3㎡당 분양가는 700만원대로 저렴하면서, KB부동산신탁이 자금 관리를 맡아 안전성을 더했다.

저렴한 특별 공급가로 인기가 많은 광주 오포우림필유 인근에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성남 아트센터, AK플라자, 분당 율동공원, 이마트 등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당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인근에는 57번 국도가 연장 공사를 진행해 2015년 완공 예정이며, 분당·도심권까지 10분 내 접근할 수 있다. 또 분당 서현역과 판교IC에서 차량으로 15분, 율동공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다.

분당의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 등을 10분대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문의: 031)714-9305

/박선옥기자

이자장사에 목매다간…

집중진단-위기의 카드사

카드대란 못지않은 악몽 우려… "새 수익원 창출해야"

[글 싣는 순서]
①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원 창출 실패
②잇딴 정보 유출로 신뢰 훼손
③과도한 현금서비스와 대출… 제2의 카드대란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결합 상품으로 특정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를 하면 기기 요금을 깍아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지 않던 A씨는 40만~50만원 정도의 한도를 예상했지만 카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구매 한도 60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가 2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는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용하라는 전화를 받고 있어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업계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급 건수 감소 등으로 수익원을 찾기 힘들어지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늘려 고객들에게 이자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

특히 카드업계에서 신용이 낮은 회원들에게도 카드론을 승인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규 카드론 이용자는 48만7284명으로 카드사들은 이 중 신용 8~10등급에 해당하는 6432명에게 카드론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전후 국내를 강타했던 카드사태의 행태와 유사해 보여 금융계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카드 발급이 당시보다는 심사도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거나 카드사가 부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또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회사의 고유 권한일 뿐권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카드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자놀이에 급급하다 보면 카드사태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 여부는 여전히 빨간불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신용카드 사용 축소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강력한 파워 지닌 진공청소기 독일 가전 브랜드 밀레는 15일부터 최대 2200W의 강력한 모터 파워를 갖춘 진공청소기 S8 시리즈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소비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날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S8 시리즈의 성능 테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정역 황금상권 '리빙텔'

전용률 높고 풀옵션 제공 입주 전 분양 마감 기대

국내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힐링하우스'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힐링하우스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보 1분 거리의 로데오거리 중심에 입지한 싱글하우스다.

로데오거리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CGV, 덕양구청, 정부민원종합청사, 명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있다. 또 화정터미널, 광역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신촌 등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권인 데다 교통도 좋아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조기 분양 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텔과 차별화한 설계로 전용률을 높였으며 LCD TV, 에어컨, 핫플레이트, 침대, 전자레인지, 빌트인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 제공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사가 에스크로우 제도로 자금 관리를 해줘 안정성을 더했다.

문의: 1588-5473

10대 건설사 6만6000가구 분양

시공 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이 올해 6만6000여 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현대건설·GS건설·한화건설 등은 지난해보다 2~3배가량 확대했다.

15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가 계획 중인 신규 분양 단지는 총 6만6918가구다. 지난해 공급된 6만6514가구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1만9814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작년에서 올해로 연기된 서울 독산동 도하부대 부지 분양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788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7242가구보다 8.9% 늘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차려 이혼했다!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방송 / 1월 24일 첫방송
송지효 | 최진혁 | 이필모 | 최여진 | 클라라 | 연출 김철규 | 극본 최윤정

"음향 빠진 게임, 김 샌 콜라죠"

IT Cafe

넥슨이 자랑하는 영상·사운드 팀 '스튜디오 찰리바' 탐방

게임에 음향이 없으면 탄산 빠진 콜라와 같다.

넥슨 신사옥에는 게임에 탄산을 불어넣는 사무공간 '스튜디오 찰리바'가 새로 생겼다. 스튜디오 찰리바는 넥슨 영상&사운드팀의 통합 작업실로 게임 사운드 개발,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고루 맡는다. 이 밖에 방송 촬영, BJ 방송과 영상 중계 등의 활동을 벌인다.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 음향 작업을 외주에 맡기거나 영상팀과 음향팀을 분리해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스튜디오 찰리바는 이름처럼 특이한 곳이다.

지난 14일 신사옥 공개 설명회에서 만난 넥슨 영상&사운드팀 서정하 팀장은 "판교 신사옥 건축 당시 독립된 브랜드의 영상&사운드팀 스튜디오를 신설해야 한다고 임원진을 설득했다"면서 "찰리바는 명배우 찰리 채플린과 '지속하다'란 뜻의 지휘 용어 바(VA)를 합친 말로 채플린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넥슨은 50여 개의 모바일게임을 개발 중이다. 게임 줄거리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게임 음향은 제2의 언어 역할을 한다. 장애물이 접근하는 소리, 아이템 획득 효과음, 게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려주는 알람이 대표적인 사례다.

넥슨의 판교 신사옥에 위치한 작업실 '스튜디오 찰리바'에서 영상&사운드팀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재 부팀장, 서정하 팀장, 심승선 선임연구원. /넥슨 제공

이윤재 부팀장은 "게임 배경 음악을 끈 채 대중가요를 듣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동차 경주 게임 '카트라이더'에서 물파리 공격은 음향이 없으면 방어하기 힘들 듯이 현대 게임에서 소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음향은 사용자 경험에 생동감도 부여한다. 심승선 선임연구원은 "게임 이용자들이 느끼는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의 타격감, 무게감, 질감은 소리가 큰 영향을 준다"면서 "게임 캐릭터가 휘두르는 칼, 점프 움직임 하나하나에 소리가 붙으면 게임이 더욱 실감 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게임 효과음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가상의 캐릭터에는 상상력을 동원해 음향을 만든다. 귀여운 음향을 개발할 때는 어린이들과 어울리거나 젊은 이용자들을 겨냥해 대중 작곡가를 영입하기도 한다.

이 부팀장은 "메이플스토리의 코알라 울음소리와 버섯 움직이는 음향 개발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코알라 울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온갖 자료를 뒤적였는데 실제 소리가 예쁘지 않아 결국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옥에서 독자적 브랜드의 스튜디오가 생긴 만큼 영상&사운드팀의 각오도 새롭다.

서 팀장은 "30여 명의 팀원이 똘똘 뭉쳐 사운드·영화·애니메이션 작업의 삼위일체로 움직일 것"이라며 "스튜디오 찰리바란 이름값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국민 첫사랑'도 FPS 여전사로

'국민첫사랑' 수지가 총 쏘는 여전사로 새로 변신했다.

스마일게이트의 인기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걸그룹 미쓰에이 캐릭터와 함께 신규 맵 5종, 신규 무기 6종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15일 실시했다.

새롭게 변신한 캐릭터는 크로스파이어의 공식 홍보 모델 미쓰에이의 멤버 'SUZY(수지)' 'FEI(페이)' 'MIN(민)' 'ZIA(지아)'로, 멤버별 특유의 개성과 매력이 잘 표현됐다.

이와 함께 신규 맵과 무기 업데이트가 추가된다. 잠수함 기지, 그리스, 천둥의 회랑, 데저스 스톰 및 이슬람사원 등 신규 맵 5종과 함께 AWM-마그마, 듀얼-콜트-마그마, KAC 체인소 등 총기 5종, 카타나 칼 1종이 추가된다.

특히 잠수함 기지의 경우 물 속에서 전투가 진행되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물 속이지만 지형 내에 고속 이동이 가능한 프로펠러가 존재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있어 물 위와 안에서의 교차 전투가 가능하다. /박성훈기자 zen@

네이버 '웹소설의 바다' 1년 만에 11만 편 배출

네이버 웹소설이 출범 이후 1년 만에 약 11만 편의 작품을 배출했다.

이 코너는 장르소설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식 작가뿐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도 쉽게 자신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61명의 정식 연재 작가와 6만2000여 명의 아마추어 작가(네이버 아이디 기준)들이 '네이버 웹소설'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정식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챌린지 리그' 코너에는 2013년 한 해 동안 약 11만 편의 작품이 올라왔다. 매일 150여 명의 새로운 작가와 300여 개의 새로운 작품이 나온 셈이다. 현재 연재되고 있는 '챌린지 리그' 작품도 5만5000여 편에 달한다. /박성훈기자

KT 지니 "스마트폰서도 원음 그대로" KT는 음악 서비스 지니(genie)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스트리밍을 통해 '무손실 원음(FLAC)'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KT 제공

"애플 '아이워치' 플렉서블 화면 장착"

NPD디스플레이서치 전망

올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스마트 손목시계 '아이워치(iWatch)'가 휘어지는(flexible) 화면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NPD디스플레이서치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 출품된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분석해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NPD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애플 아이워치는 1.3인치와 1.6인치 화면은 휘는 아몰레드(AMOLED,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상도는 320×320으로 1.3인치 화면은 밀도가 348ppi(인치당 화소 수), 1.6인치 화면은 278ppi가 된다. 이는 1.6인치 화면에 해상도 320×320, 밀도 278ppi인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와 같다.

NPD디스플레이서치는 올 10월경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6에는 아이폰5S(4인치)보다 큰 4.7인치나 5.5인치 화면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새 아이패드도 12.9인치 화면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NPD디스플레이서치는 "성장이 정체됐던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이 휘어지는 화면 등장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며 "2014년이 디스플레이 혁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내 아이의 추억 찍는 캐논 최대 38% 싼곳

베이비페어에서 캐논 카메라를 최대 38% 싸게 살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징 기술 선도기업 캐논코리아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서울국제임신출산육아용품전시회(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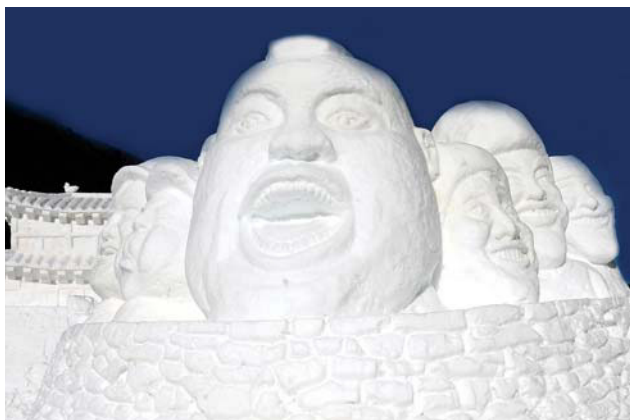
캐논은 이번 베이비페어에서 겨울의 하얀 감성이 담긴 화이트 컬러와 함께 선물의 집을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스는 아이와 엄마가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크게 터치앤트라이 존, 세일즈 존, 캐논 포토 존, 셀피 존으로 구성된다.

터치앤트라이 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DSLR 카메라 EOS 100D 화이트를 비롯한 DSLR 카메라 3종과 캐논의 명성과 역사를 담은 콤팩트 카메라 3종, 오디션 캠을 직접 조작하고 체험해볼 수 있다. 여기에 뛰어난 인화 품질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포토프린터 '셀피 CP900'도 만나볼 수 있다.

세일즈 존에서는 DSLR 3종(EOS 100D, EOS 70D, EOS 6D)과 콤팩트 카메라(IXUS 135), 포토프린터(셀피 CP900), 오디션 캠(VIXIA MINI)을 판매한다. 현장 구매 고객에게는 최소 7%에서 최대 38%의 할인 혜택과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태백산 눈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15일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등 강원 태백시 곳곳에서 대형 눈 조각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태백은 지금 '겨울 테마파크'

눈, 사랑 그리고 환희의 '태백산 눈축제' 내일 개막
스노 래프팅·얼음 미끄럼틀·이글루 카페 이색 재미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강원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 황지연못 및 시내 일원에서 '눈, 사랑, 그리고 환희'라는 주제로 '태백산 눈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이하며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은 태백의 겨울을 즐겨보자.

◆꿈과 낭만의 눈 조각

축제는 먼저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눈 조각을 준비했다. 태백역 주변에는 태백시 캐릭터에 동·하계 스포츠를 접목한 눈 조각이 전시되며 태백시 중앙로에는 황부자 전설과 검룡소, 단군, 며느리와 아들의 모자상 등의 작품이 들어선다.

또 태백산의 중심에 자리한 당골광장 주변에는 남대문·광화문 등 한국 전통 건축물과 안중근·유관순·김구 등 위인들의 눈 조각이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당골광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장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태권V 등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태백산도립공원 일대에는 대학생 눈 조각 경연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 12점도 전시된다.

◆눈꽃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

축제에는 볼거리와 함께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눈 미끄럼틀·얼음 미끄럼틀·스노 래프팅·눈미로·스노모빌 등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팽이치기·투호놀이·제기차기 등의 전통 놀이도 즐길 수 있다.

특히 태백산 단군성전 앞에서는 대형 이글루 속에서 차와 커피를 즐기며 태백의 눈꽃을 만끽할 수 있는 이글루 카페가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되며 26일 오전 9시부터는 등산 코스 2개 구간에서 진행되는 태백산 눈꽃 등반대회가 열린다.

이외에도 안데스 음악 공연, 모듬북 공연, 트로트 공연, 자이언트 캐릭터 퍼레이드, 눈축제 캐릭터 댄스 공연, 스탬프 미션 체험, 소원 엽서 쓰기 체험 등의 행사도 이어진다.

◆눈축제만이 주는 색다른 매력

축제는 겨울 축제의 대명사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지만 태백산눈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연탄불 먹거리, 대형 연탄 화덕 구이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책임지며 설피타기 체험, 고로쇠스키 체험, 핫팩 만들기, 활 만들기 체험, 눈으로 연탄 만들기 체험 등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또 축제 기간 내내 황지연못에서는 태백산눈축제 '별빛 페스티벌'이 열려 아름다운 별빛이 축제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월 17~26일
- 장소: 강원 태백시 태백산 도립공원, 황지연못, 시내 일원
- 문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033)550-2085, 관광안내소 550-2828

태백산 눈축제장의 얼음 미끄럼틀은 차가울 새 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을 잇는다.

인제는 빙하시대…빙어 낚시꾼 모여!

18일부터 26일까지 '인제빙어축제' 열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강원 인제군 인제대교 일대 소양호에서 '인제빙어축제'가 열린다.

'빙하시대! 놀이천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겨울 축제의 꽃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우선 축제에서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빙어 낚시와 낚시로 잡은 싱싱한 빙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또 튀김과 비빔 등으로 빙어를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으며 빙어먹거리촌, 산촌먹거리촌 등에서는 빙어회 무침, 튀김 등의 색다른 빙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축제의 주인공인 빙어를 주제로 한 열려라 빙어세상, 빙어마을 평생학습 체험마당, 빙어마을 한마음 가족 백일장 등도 준비되며 관람객과 주민이 함께 대형 그물로 민물고기를 잡는 소양호 여들털기도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대형 눈조각과 얼음터널, 비상하는 빙어 조형물 등의 볼거리도 다양하게 펼쳐지며 빙어마을 힐링캠핑장, 소양강둘레길 트레킹 대회, 산촌문화 체험, 아이스모빌 투어, 빙벽 타기, 전국얼음 축구대회, 전국 빙어 노래자랑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석구석

◆철원 한탄강얼음트래킹 축제

- 날짜: 1월 18~26일
- 장소: 강원 철원군 한탄강 일원

'동지섣달 꽃 본 듯이'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얼음 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한탄강 태봉대교를 출발해 승일교까지 5.5km의 꽁꽁 언 한탄강 위를 걸으며 기암절벽과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둘러볼 수 있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사진 콘테스트와 인간 컬링, 썰매 체험, 전통팽이 만들기 등 다양한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행사장에서는 철원의 다양한 먹거리를 나누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거제도 국제 펭귄 수영축제

- 날짜: 1월 18일
- 장소: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

축제는 참가자들이 바닷물로 뛰어들어 30m를 왕복하는 수영대회와 맨손으로 광어 잡기, 펭귄 미인 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새해 소원 편지 쓰기, 떡메 치기, 맨발 얼음판 오래 버티기, 보물찾기, 사진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과 참가들에게 복떡국과 복계란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이어진다. 또 수영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기념 메달 등이 지급된다.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 날짜: 1월 17일~3월 31일
- 장소: 충남 홍성군 남당항 일원

축제에서는 겨울철 서해안에서만 잡히는 새조개를 실컷 맛보며 즐길 수 있다. 축제 장소인 남당항 일대에 들어선 음식점과 포장마차에서 새조개회, 초밥, 샤부샤부 등의 색다른 새조개 요리를 만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새조개까기, 어류잡기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설 선물 구매 트렌드 한마디로 BLUE

대량 구매·특산물·과거 인기제품·사전구매 할인
저렴하면서 받는 사람 취향 부담 적은 물품 선호

올해 온라인 마켓에서 설 선물 구매 양상은 ▲할인이 큰 대량구매(Bulk buying) ▲지역 특산 신선식품(Local food) ▲위생용품세트와 참치캔세트 등 과거 인기 선물세트(U-turn) ▲찬스형 구매(Early bird)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은 15일 올해 인기 설날 선물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키워드로 'BLU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Bulk buying…동일 상품 대량구매로 할인폭 증대

명절 선물은 가족과 친지·지인 등 다수를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대량구매가 많다. 오픈마켓을 포함한 유통업계에서는 패키지 할인, '+1 덤' 행사 등을 통해 대량구매 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대량구매가 많은 사업자들은 사업자 회원에게 판매가 및 적립금 등에서 혜택을 추가해주는 사업자 전문몰 비즈플러스와 사업자 대상 설 선물관 등 전문관을 이용해 설 선물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Local food…과일·한우 등 지역 특산물이 명절 선물 1위

청송 사과·나주 배·완도 김 등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지역특산물 브랜드가 있다. 이번 설에도 지역 특산물은 선호하는 선물 품목이다. 옥션이 최근 성인 남녀 2262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로 계획하는

상품군을 문의한 결과, 22.4%가 과일선물세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이 꼽혔다. 작년 과일이 대풍을 맞아 현재 사과·배 등 국산 과일이 작년 동기 대비 20~40% 저렴하다. 한우 상품은 올해 가격 경쟁률이 높은 정읍·장흥 등 전라도권 한우가 한우선물세트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U-turn…샴푸·참치캔 등 과거 인기 모델 실속형 세트 인기

불황으로 치약·칫솔·샴푸·참치캔 등 과거 인기 모델 선물세트가 꾸준한 인기다. 설 명절을 2주 앞둔 15일 현재, 1만원 이하 저가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최근 일주일간 작년 설 대비 143% 판매 증가했다.

◆Early bird…타임 세일 노리는 찬스형 구매 증가

조기 타임세일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알뜰 구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옥션에서 매일 오전 10시 설 프로모션 상품을 최대 68% 할인가에 판매하는 '올킬 수퍼위크'가 3일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견과류 시장 10년간 13배 성장

롯데마트 매출액 기준
고객 과반수 50대 이상
20대 미용목적 구매 커

견과류의 인기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롯데마트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여간 매출 트렌드를 집계한 결과, 이 기간 견과류 매출은 무려 13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견과류는 단백질·비타민·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많고, 불포화지방으로 구성돼 노화 예방·심장병·당뇨병에 효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30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섭취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견과류의 신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돼 잣·아몬드·해바라기씨 등 견과류 상품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5배가량 늘었다고 롯데마트 측은 설명했다.

롯데마트의 작년 견과류 연령대별 매출에선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반면에 대형마트 주요 고객인 30~40대 보다 20대의 견과류 매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돼 다이어트와 미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견과류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기준 '견과류가 함유된 우유' 매출이 37.3% 늘었다. 시리얼의 경우 '일반 시리얼'은 17.6% 감소했지만 '견과류가 포함된 시리얼'은 6.8%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정영일기자

"탈모는 질환…모발이식은 치료 보완책"

초기 치료 시 모발이식 수술 없이 탈모 극복 사례 많아

모발이식학회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현재 국내 탈모 인구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모 인구가 늘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성이며 유전 유무와 관계없이 누적된 스트레스, 잦은 음주, 환경호르몬도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출산,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자극성이 강한 샴푸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탈모 연령대가 2030세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재발이 잦은 유전성 남성탈모의 경우는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탈모로 고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의 수술로

탈모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 치료적인 성격이 아닌 보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탈모의 근본적 치료를 등한시한 채 수술만 강행한다면 이식 부위 외에 또 다른 부위의 탈모 진행으로 재수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대해 오준규(사진) 모리치 피부과 원장은 "유전성이나 재발이 잦은 난치성 탈모 질환일 경우 근본적 치료 과정이 생략된 채 무작정 수술만을 권하는 것은 의사의 양심으로 지양돼야 한다. 탈모는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한 후 M자형 탈모나 정수리 탈모 등 개인의 탈모 증세에 따라 맞춤형 모발이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대 의대 피부과 전문의 출신으로 동 대학 탈모클리닉 전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네이버 하이닥 모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 원장은 개원 후 13년 동안 3500건 케이스 이상의 모발이식 수술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난치성 탈모 질환 환자도 3300건 케이스 이상을 완치시킨 바 있다.

/황재용기자

오랄케어 구매시 노즐·칫솔모 증정

파나소닉 '치아튼튼' 이벤트

파나소닉코리아가 오는 3월 말까지 집에서 간편하게 입속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파나소닉 치아튼튼 프로젝트' 이벤트를 벌인다.

파나소닉코리아는 행사 기간 동안 파나소닉 오랄케어 제품 구매객에게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즐과 칫솔모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도 파

나소닉 오랄케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입안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강술래 설 선물세트 최대 43% 할인

한우불고기·양념갈비 메뉴 구성 제품 인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최대 43% 할인 판매 중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 주문이 몰리면서 벌써부터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한우불고기와 양념갈비 등 매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큰 인기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 12만원, 술래양념1호(16대)는 8만원에 판매 중이다.

인기 메뉴끼리 결합한 술래실속

(불고기 1.8kg+술래 16대)과 명절에 쓰임새가 많은 부위로 구성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총 2.4kg)도 각각 13만원과 14만원에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넣지않아 건강 선물로 좋은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4500원에 판매하며,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6봉)도 2만7700원에 살 수 있다.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질질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는 4만45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1.08kg)는 2만7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3만1900원, 100% 자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도 3만6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도심서 보내는 우아한 명절 1박2일 '휴~'

롯데호텔서울 '설 패키지' 26일~다음달 4일 선봬
조식뷔페·클럽라운지·영화티켓 등 특전따라 2종

롯데호텔서울이 설날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4 설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고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슈페리어룸에서의 1박과 조식 뷔페 2인을 기본 특전으로 한 '휴I'(22만원)과 디럭스 클럽룸 1박과 클럽 라운지 2인 이용 혜택, 환영 와인과 과일, 롯데시네마 샤롯데관람권 2매를 포함한 '휴II'(26만원)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호텔은 설 연휴 기간 멀리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형 상품도 마련했다.

상품에는 디럭스룸 1박과 조식 뷔페 2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매를 포함한 '아빠사랑'(26만원)과 설날 고생한 아내를 위한 '아내사랑'(34만원)이 있다. 특히 아내사랑 패키지는 주니어 또는 코너 스위트 클럽룸에서의 1박과 클럽 라운지 2인 이용 혜택, 환영 와인 및 과일, 한식당 무궁화에서의 특별 설 디너 2인, 설화수 스파 순환 회복 프로그램 1인과 설화수 스파 50% 할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또 모든 이용 고객은 수영장, 사우나 및 피트니스,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호텔은 패키지 이용 고객 중 말띠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일반권 2인을 추가로 제공하며 2014년 청말띠 해를 기념해 체크인 시 롯데호텔이 특별 제작한 저금통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1월 20일까지 예약한 고객 중 휴I 패키지 예약자에 한해 슈페리어룸에서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도 제공되며 30일에는 '설 전통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행사도 진행된다. 문의: 02)759-7311~5

/황재용기자

말굽 귀고리·지브라 백…'말 달리는' 패션

주얼리·의류 등 브랜드 馬형상 제품 출시 열풍

패션업계가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청마와 말굽을 모티브로 한 아이템을 내놓고 할인 이벤트를 하는 등 말의 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주얼리 브랜드 '미니골드'는 말굽·복주머니 등 새해를 상징하는 모양의 14K 클러치 귀고리를 출시하고,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믹스앤매치 귀고리는 틀에 박힌 디자인·색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귀고리 세 개를 한 세트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는 청마의 해를 기념한 다양한 장식물을 새로 내놨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청색 뮤라노와 판도라의 말띠 댕글 참으로 연출한 팔찌는 청말띠의 행운을 팔찌에 담았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는 말의 해를 기념해 '이어 오브 호스' 스웨이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푸마를 대표하는 스웨이드 스니커즈에 말을 상징하는 갈색을 입혔다. 신발 혀 부분에 전통적인 나무 장기알에 새겨진 말 '마(馬)'자를 한자로 새겨 넣었다.

MCM의 보스턴 백 '펑키 지브라' 역시 말의 해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보스턴 백 형태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색상이 돋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행운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인기를 끈다"면서 "청마의 해를 맞아 말이나 말발굽 형상의 제품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설날엔 웅진플레이도시로

부모 동반 자녀 1명 공짜
30일~내달 2일 행사 다양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가족형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www.playdoci.com)가 설날을 맞이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 동안 3인 이상 가족이 워터파크&스파 또는 스노우파크를 이용할 경우 어린이 1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설날 당일(1월 31일)에는 어린이 가족 방문객을 위한 깜짝 선물 증정 이벤트가 준비된다.

이와 함께 명절에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워터파크&스파에서는 스릴 넘치는 워터 블롭점프와 아쿠아트랙, 물 위의 징검다리 건너기 등 재미있는 워터 게임이 펼쳐지고 야외 스노우 플레이존에서는 추억의 야외 썰매와 대형 윷놀이, 투호 등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또 눈사람과 펭귄 등 겨울 대표 캐릭터들의 신나는 퍼레이드와 윈터 매직쇼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문의: 1577-5773

아기 키우느라 못가는 베이비페어 클릭!

유아용품 브랜드들 온라인 이벤트 열고 손짓

'제25회 서울 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이하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에 맞춰 유아용품 업체들이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줄줄이 열고 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겐 글로벌 유아용품을 집 안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쁘띠엘린은 다음달 2일까지 공식 쇼핑몰 쁘띠엘린 스토어에서 온라인 베이비페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엘리펀트이어스·킨더스펠·밀로앤개비·에티튜드 등 유리 젖병이나 친환경 기저귀와 같은 육아 필수품에서 의류, 침구, 가구 등을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인다. 1주마다 할인 제품이 바뀐다.

세피앙은 20일까지 세피앙몰에서 유아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브라이택스카시트·유모차, 맥클라렌 유모차, 유미 젖병 등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페투니아 피클 바텀 기저귀 가방, 에티튜드 기저귀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베페팩'도 출시한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는 16~19일 서울 코엑스 1층 A·B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국내외 360개 업체가 참가하며, 16~17일 선착순 입장객 2000명에게 장난감을 증정한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및 행사 방문 전까지 회원 정보를 수정한 기존 회원, 베페 앱·기프트카드·롯데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시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동아오츠카 '건조타파 1탄'

동아오츠카가 '건조타파 1탄: 나만의 블루박스를 채워라'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리즈로 구성된 이번 이벤트는 오는 22일까지 포카리스웨트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pocarisweat.kr)에서 진행되며 건조한 겨울철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만의 아이템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등(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제공되며 2등(20명)과 3등(30명)에게는 각각 댓글에 남겨진 아이템들로 구성된 블루박스와 포카리스웨트 340㎖ 페트병 1박스가 주어질 예정이다.

겨울철 체내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작된 건조타파 이벤트는 건조로 인한 증상, 감기 예방, 수분 보충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제로투세븐 사은품 이벤트

제로투세븐이 다양한 설맞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알로앤루와 알퐁소·포래즈는 16일부터 7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알로앤루와 포래즈는 식료품을 담을 수 있는 보냉가방을, 알퐁소는 브랜드 캐릭터인 강아지 '빌'이 프린트된 담요를 제공한다.

섀르반은 봄 신상품 25만원 이상 구입객에게 아동용 침낭을 준다. 궁중비책은 민감성 피부 아동을 위한 '효 72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싱어송라이터 정준일(32)의 음악은 새롭거나 낯설지 않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함이 묻어난다.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극적인 멜로디는 없지만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특히 1990년대 청춘을 보낸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이 간다. 시대의 트렌드에 흔들리기보다 매번 자신의 음악을 선보여온 그가 16일 정규 2집 '보고싶었어요'를 발매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음악을 즐겨 들었던 정준일은 "나는 그 시대 감성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시대 트렌드를 역행할 수 있지만 좋은 연주와 악기들로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음악이 주는 날것의 감동 담았죠"

정규 2집 '보고싶었어요' 발표 정준일

◆ **한 편의 영화 같은 오케스트라 연주**

정준일이 정규 2집을 시작하는 데 캐나다의 음악가이자 화가인 조니 미첼의 영향이 컸다. 조니 미첼은 기타나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1970년대 전성기를 보냈다.

"우연히 조니 미첼의 음악을 듣고 오래된 음악이지만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음악은 전자악기의 힘을 빌리는 반면 그의 음악은 현의 움직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통 대중가요는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저는 이번 앨범에 현을 내세웠어요. 전자악기보다 현을 중심으로 음악이 주는 원초적인 감동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때문일까. 정준일이 직접 작사·작곡한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10곡 중 8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국내 최정상급 세션인 서영도·홍준호·신석철 외에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20인조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또 팻 메스니·류이치 사카모토·마이클 브레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한 강효민 엔지니어가 함께했다.

◆ **정규앨범 "욕심 버릴 수 없죠"**

최근 가요계 트렌드는 미니앨범과 디지털 싱글이다. 그러나 정준영은 정규앨범을 선택했다.

"정규앨범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선배들에게 '돈 많이 들 텐데'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정규앨범은 꿈이나 마찬가지죠. 적게 벌고 적게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죠. 만약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음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는 술과 담배를 못하고 클럽도 1년에 한 번 갈 정도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악과 연애'다. 이 같은 마음은 고스란히 앨범에 담겨있다.

그는 "1집보다 사랑 이야기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며 "사랑보다는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세 번째 트랙 '고백'은 진솔한 가사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정준일 특유의 애절함이 묻어나온다.

◆ **아티스트도 인정한 그의 재능**

가수 윤종신을 비롯해 이소라·유희열·김동률 등 선배 뮤지션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특히 7번째 트랙 '크리스마스 메리'는 가수 이소라의 성향이 묻어난다.

"메이트로 활동할 당시 (이)소라 누나가 좋다고 했던 노래 대부분이 제가 만든 곡이었죠. 가끔 '네가 쓴 노래는 내가 부르면 되는 거잖아'라는 농담도 하세요. 특히 '크리스마스 메리'는 처음에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김동률 선배가 너무 전형적이라고 말해 기타 부분을 늘려서 재즈음악으로 완성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이번 앨범을 듣고 유희열은 "제일 기대되고 두렵기도 한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디자인/박은지·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

전자악기 보다는 현 중심
고마웠던 기억 노래했죠
타이틀곡엔 애절함 묻어
뮤직에 대한 열정 '무한대'

기온 뚝!! 발이 꽁꽁~ 온열기능과 발마사지를 한번에 OK~!!

하루 15분, 따뜻한 발 마사지기 "직접 써보세요"

인체의 축소판 발을 잘 관리해야 피로 쌓이지 않아...

발은 인체의 축소판 마사지로 몸의 피로를 날려버려야..

발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발에는 인체의 오장경락의 끝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오래 서있거나 많이 걸어 피로감을 느낄 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발을 마사지해주면 몸의 피로도 함께 풀리고 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피로가 점점 쌓이기 전에 꾸준한 발 관리를 통해 피로를 날려버려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발을 자극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이 이완되어 노폐물 배출!

이렇게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인 발의 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몸이 개운하지 못하고 찌뿌둥하게 된다.

발은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발을 자극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통로가 열리고 이완되어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씽씽풋 발 마사지기는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전체를 마치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주무르고 지압한다. 발의 굴곡을 고려한 3차원 메커니즘을 통해 라운드 형식으로 설계되어 발바닥 전체에 고른 힘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인 마사지를 제공한다.

겨울철 차갑고 시려운 발 온열기능으로 따뜻하게 유지

차가운 겨울철엔 손발이 더욱 시리고 감각이 둔화되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건강에 좋다고 했다. 씽씽풋의 온열기능은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하여 온몸의 순환을 도와주어 건식 족욕 효과를 완벽하게 재현해준다.

발전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듯한 시원함~ 공기압 마사지로 꾹꾹~ 지압효과~

씽씽풋의 공기압 마사지와 활자형 발 반사판이 발 전체를 손으로 하듯 강하고 시원하게 주물러준다. 기호에 따라 주무름이나 지압만 따로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하루 종일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많은 일을 하는 발을 풀어주고 빠근함을 완화시켜줘야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제품문의 1544-4434)

2014년형 라운드 방식 채택한 신제품 출시!

집에서 직접 느끼는 온열 발 마사지기 씽씽풋

발의 굴곡을 고려한 라운드 형식의 발 반사판과 22개 지압봉이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지압해준다!

씽씽풋은 발의 굴곡을 고려하여 라운드 형식으로 발바닥을 눌러주고 주물러주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발끝부분까지 시원하게 프로 지압사의 지압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압 안마로 발등까지 꾹꾹~ 시~원~하게~ 온몸의 피로가 싹~

씽씽풋은 기존 제품에서는 불가능했던 발등 부위까지 공기압을 이용한 강한 주무름 기능이 가능합니다. 마치 손으로 꾸욱~ 하고 누르듯이 주물러주고 3단계 강도 조절로 선택의 폭을 넓혀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탈부착 커버로 청결함 유지

발 부위 천의 지퍼를 열고 분리하여 세탁할 수 있어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원차단 기능과 3단계 강도조절 가능

15분 안마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어 무리한 사용을 막아주고 3단계 강도조절 기능으로 개인에게 맞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열기능으로 노폐물까지 싹~ 간편한 건식 족욕 효과로 마사지 효과 두배!

씽씽풋의 온열기능으로 땀과 노폐물을 배출을 돕고 순환이 잘 돌게 하는 건식 족욕 효과를 집에서 손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온열로 족욕 효과를 보면서 지압과 주무름 기능을 함께 체험하신다면 시원함을 느끼고 피로를 푸는 성능이 더욱 탁월합니다.

특별 할인 이벤트!!

제품 문의

1544-4434

(평일 상담 :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분
토, 일 상담 : 오전 9시 ~ 오후 6시)

지금 전화주시면 1일 200분에게 할인된 가격에 씽씽풋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반품 택배비 부담없이 3일 무료체험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겨울철 더욱 심해지는 손발시림 손발이 차고 저릴때 주무르는 이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유독 손발이 차서 그 속부터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다. 손발시림은 제대로 체내순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내순환은 체내의 온기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손과 발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손과 발이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손발시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여성의 손발이 더 차가운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혈관이 더 가늘며 스트레스에 예민하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손발이 저려서 나도 모르게 주무르고 있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다. 무심코 주무르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환을 돕기 위한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발의 피로누적 그때그때 풀어줘야.. 중장년층, 하이힐 신는 젊은 여성도 주의!

특별히 하는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 앞쪽이 아프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디뎠는데 너무 아파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다면 주목하자.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운동을 하는 40~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많다. 발바닥의 근육은 외부로부터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육에 무리가 가면 발바닥이 붓고 발바닥과 뼈가 만나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

호르몬의 변화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져 쿠션기능이 떨어지는 폐경기 여성이나 하이힐을 신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젊은 여성은 특히나 발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하루 10분 이상 마사지하기를 권장한다.

고객 체험기

씽씽풋이면 올겨울 꽁꽁 얼은 발 걱정없어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언젠가부터 발이 조금씩 붓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도 겁나고 집안에서도 서있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녁마다 족욕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괜찮나 싶다가도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면 좋다는 소리를 듣고 발 마사지기를 알아보던 중에 씽씽풋 발 마사지기가 눈에 들어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랫부분만 울퉁불퉁하게 돌아가던 마사지기랑 다르게 위에서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해주고 발가락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마사지해주니까 정말 좋네요. 한달 가까이 사용했는데 하고 나면 발도 따뜻해지고 발바닥이 시원해져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제 겨울이라 손발 찬 계절이 돌아왔는데 씽씽풋 발 마사지기로 혈도 잘 돌게 해야겠어요~

업무로 쌓인 피로~ 씽씽풋으로 말끔하게 싹~

씽씽풋 발마사지기 정말 좋네요~

업무에 지쳐서 맨날 골골거리니 틈만 나면 쉬려고 하는데 씽씽풋 사용 후에는 뭔가 피곤함이 풀리는 것 같아요. 거의 회사에서 생활하니까 전 아예 사무실 책상 아래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나른하고 피곤할 때 자동모드 한번씩 해주면 몸도 개운해지는 거 같고 온열기능이 있어서 요즘처럼 추울 땐 발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사무실 사람들도 다들 한번씩 해보더니 어찌나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지~ㅋ 사무실에서 인기스타입니다~! 발 마시지만 잘해도 건강해진다더니 요즘 정말 개운한거 같고 기분도 좋아지니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가족들이랑 말 한마디라도 더하게 되네요!

무대는 눈부셨고 가창력은 안정됐다

'초대형 신인그룹' 갓세븐 쇼케이스… "성장하는 아티스트 될 것"

2014 초대형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신인 그룹 갓세븐(GOT7)이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갓세븐은 15일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데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 무대라 긴장을 많이 했다.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가고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다. 끝없이 성장할 테니 많이 사랑하고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2PM 이후 6년 만에 JYP가 선보이는 보이 그룹 갓세븐은 한국을 비롯해 태국·홍콩·대만계 미국인 등 7명의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됐다. 이미 해외 유명 음반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데뷔 전부터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갓세븐(GOT7)이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열린 데뷔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타이틀곡 '걸스 걸스 걸스'는 박진영이 작사·작곡한 힙합곡으로 갓세븐의 개성과 특별한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곡이다. 특히 원더걸스의 메가 히트곡 '텔 미' 중 소희의 '어머나' 부분의 샘플링이 삽입돼 추억을 되새김은 물론 갓세븐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날 갓세븐은 '따라와' '난 네가 좋아' '걸스 걸스 걸스' 무대를 선보였다. 멤버들은 묘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꾸미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과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엑소가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의 위너가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데뷔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JYP의 갓세븐이 등장함에 따라 신예 아이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갓세븐은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방송 활동에 돌입하고 오는 20일 데뷔 앨범 '갓 잇'을 발매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달샤벳 뮤비 조회 100만건… 中 사이트 1위

걸그룹 달샤벳(사진)의 신곡 'B.B.B'가 중국 가요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달샤벳의 신곡 'B.B.B' 뮤직비디오는 지난 14일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서 조회 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또 이번주 종합 순위 1위는 물론 신곡 호평 순위 1위, 전체 신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다.

종합 차트에선 중국 인기곡도 제쳤다. 달샤벳에 이은 2위는 영화 '대천요궁' OST '대천요궁', 3위는 장뤠이의 '부지시정인(연인만이 아니야)'이 올랐다. 지난해 6월 달샤벳의 '내 다리를 봐' 뮤직비디오가 일주일 만에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들의 중국 내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양성운기자

망가지는 '힙합 전설' 스눕독

싸이 신곡 뮤비 촬영

전설적인 힙합 스타 스눕독도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예외 없이 망가질 전망이다.

스눕독이 싸이의 신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지난 14일부터 2~3일간 인천을 중심으로 일대에서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한다. 출국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눕독은 현재 싸이와 뮤직비디오 작업에 한창이라고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싸이가 자신의 트위터에 스눕독과 함께 촬영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공개했다. /싸이 트위터

싸이는 14일 밤 트위터에 '나와 스눕독'이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싸이와 스눕독은 당구장에서 큐를 하나씩 들고 나란히 서 있다. 흰 셔츠에 넥타이, 체크무늬 바지 등 마치 형제처럼 비슷한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코믹한 설정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는 물론 출연자들 모두 온몸을 내던지는 코믹 연기를 펼쳐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듯이 스눕독도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싸이와 환상의 호흡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눕독은 1992년 유명 프로듀서 닥터 드레의 솔로 앨범 '더 크로닉'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자신의 데뷔 앨범 '도기스타일'로 빌보드 정상을 차지하며 스타 래퍼 반열에 올랐다. 이후 그는 20여 년 동안 1억7000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미국 서부 힙합신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스눕독이 작업에 참여한 싸이의 신곡은 다음달이나 3월 중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싸이는 새 앨범에서 여러 편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o@

"음원 무단 사용한 적 없다" 이승철 소속사 법적 대응

음원 무단 사용과 관련해 피소를 당한 가수 이승철(사진)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철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5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이 10집 리패키지 앨범에서 일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10집 음원 사용을 동의하고 음반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정산도 받았다"며 "그런데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앨범이 발매된 지 4년4개월이 지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음원 정산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순호기자

팝스타 브루노 마스 4월 첫 내한공연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사진)가 첫 내한공연 일정을 확정했다.

브루노 마스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월드투어 '문샤인 정글투어'의 일환으로 4월 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투어는 34개국에서 101회에 걸쳐 진행되며 앞서 공연이 끝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총 48회 공연 가운데 44회가 매진돼 뜨거운 인기를 확인했다.

브루노 마스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월드투어 일정에 한국을 포함해 팬들을 들뜨게 했다. 2010년 내놓은 데뷔 앨범인 '두왑스 & 훌리건스'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출시된 팝 가수의 데뷔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데뷔 앨범과 2집 '언오서독스 주크박스'(2012)로 전 세계에 1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26일 열리는 제5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5개 주요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예매는 21일 정오부터 인터파크에서 진행된다.

/유순호기자

쟁쟁한 외화들 힘못쓰네

'더 울프…' '타잔3D' 등 한국영화에 밀려 톱3 진입 못해

쟁쟁한 외화들이 국산 영화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타잔 3D'가 개봉 일주일째인 15일 각각 박스오피스 4위와 5위를 기록 중이다. 누적 관객은 29만7784명과 40만4396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같은 날 개봉한 한국 영화 '플랜맨'(박스오피스 3위, 누적 관객 42만5845명)에도 밀렸다.

'더 울프…'의 성적은 최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다. 대작 애니메이션 '타잔 3D'도 겨울방학 특수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 지난달 31일과 24일 개봉한 외화 기대작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와 '썬더와 마법저택'도 지금까지 누적 관객이 고작 80만~90만 명을 동원해 6위와 9위에 머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외화의 고전은 지난해부터 거세진 한국 영화의 활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8일 개봉한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이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전망으로 극장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공유 주연의 '용의자' 역시 약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의 흥행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밖에 연말 최대 외화 기대작이었던 '호빗 : 스마우그의 폐허'(지난달 12일 개봉)가 상영 제한이라는 큰 악재에 부딪힌 것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달 '겨울 왕국' '잭 라이언 : 코드네임 쉐도우' '하드 데이' '폴리스 스토리 2014' 등 대작 외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흥행 반전에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타잔 3D

"우리는 핑크커플" 영화 '피끓는 청춘'의 남녀 주인공 이종석과 박보영이 15일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같은 색상의 코트와 스커트 차림의 '핑크빛 커플룩'을 선보였다. 22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1980년대 충청도를 배경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청춘 남녀의 로맨스를 그린다.

▶ 80년대 커플의 미래지향적인 판타스틱 패션. /유순호기자·/연합뉴스

작년 놓쳤던 영화 보고싶다면 여기

'메가박스 시네마 리플레이' 다음달 7일부터

지난해 상영작 관람을 아쉽게 놓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 다시 보고 싶은 좋은 영화를 재상영하는 '2014 메가박스 시네마 리플레이'가 다음달 7~28일 매주 금·토·일요일마다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한 작품씩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토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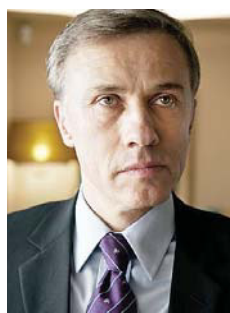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매년 개최하는 '메가박스 시네마 리플레이'는 2011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다. 올해는 메가박스와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엄선한 '꼭 다시 봐야 할 2013년의 좋은 영화' 30편 중 온라인 인기 투표를 통해 10편을 선정한다.

한국 영화 후보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사이비' '우리 선희' 등이 선정됐다.

외화 후보는 '그래비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이프 오브 파이' '링컨' '머드' 등이다.

투표는 20일까지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투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상영작은 22일 발표되고 27일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탁진현기자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단에 양조위 등 8명

크리스토프 발츠

양조위

미셸 공드리

다음달 개막하는 제64회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단의 명단이 공개됐다.

영화제 측은 14일 미국 영화 제작자인 제임스 샤머스가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배우로 아카데미상을 두 번 수상한 크리스토프 발츠와 홍콩 대표 배우인 양조위의 심사위원 선임 소식도 전했다.

올해 심사위원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미국 배우 그레타 거윅, 덴마크 배우 트린 디어홈, 프랑스 영화 제작자 미셸 공드리, '007' 시리즈 제작자 바바라 브로콜리, 이란 여류 감독 미트라 파라하니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포커스 피처스 대표인 샤머스는 1993년 베를린영화제에서 금곰상을 받은 '결혼 피로연', 미국 아카데미상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브로크백 마운틴' 등 이안 감독의 대표작을 제작했다. 중화권 영화인 '와호장룡'과 '색계'의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했다.

베를린영화제는 다음달 6일 개막작인 웨스 앤더슨 감독의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상영으로 시작해 12일 폐막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각본·감독·제작·주연을 도맡은 화제작 '모뉴먼츠 맨: 세기의 작전'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맷 데이먼·빌 머레이·케이트 블란쳇 등 캐스팅이 화려한 작품이다.

이 밖에 제5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페루 영화 최초로 황금곰상을 수상했던 클라우디아 로사 감독의 신작 '어로프트', 프랑스 거장 알랭 러네 감독의 신작 '로아프 오브 라일리'도 공개된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 영화의 진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이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탁진현기자

비버 자택서 마약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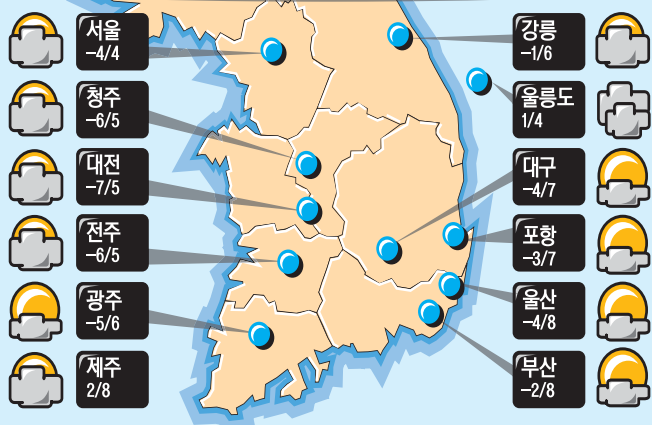
최근 이웃집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사진)에 대한 경찰의 가택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한 남성이 체포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 관계자는 15일 비버의 저택을 수사하다가 그의 집에 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서 코카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택 수사 당시 비버도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마약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계란 투척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것도 결백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원래 경범죄로 분류됐지만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어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해액이 2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버는 최근 호주에 방문했다가 자신이 머물던 호텔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브라질에서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등 기행과 사건을 잇따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은퇴한다고 적어

시선을 끌었으나,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다.

/탁진현기자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아침이나 저녁보다 기온이 높은 낮에 운동해야 합니다. 또 운동할 때는 보온과 통기가 잘되는 운동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5		9		1		2	3
8			4		5			7
		8	2		7	9		
3		7		1		5		2
		1	6		4	3		
1			5		2			9
2	3		1		8		5	4

		6						
	3		2					
4		5		9			1	
	8		7			5	6	
		7			8	4	2	
				6	5		9	
			4	7				9
		4	6	2	1		8	
						6		

스도쿠 정답

6	1	2	7	8	3	4	9	5
7	5	4	9	6	1	8	2	3
8	9	3	4	2	5	1	6	7
5	4	8	2	3	7	9	1	6
3	6	7	8	1	9	5	4	2
9	2	1	6	5	4	3	7	8
1	8	6	5	4	2	7	3	9
2	3	9	1	7	8	6	5	4
4	7	5	3	9	6	2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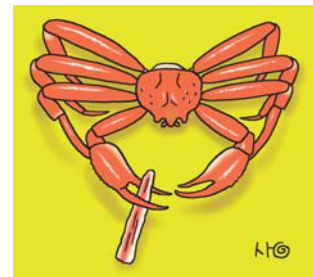
9	7	6	8	1	4	2	3	5
8	3	1	2	5	6	9	7	4
4	2	5	3	9	7	8	1	6
1	8	9	7	4	2	5	6	3
6	5	7	9	3	8	4	2	1
3	4	2	1	6	5	7	9	8
2	6	8	4	7	3	1	5	9
5	9	4	6	2	1	3	8	7
7	1	3	5	8	9	6	4	2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해각포를 아시나요?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겨울에는 대게가 맛있다. 고려말의 학자 목은 이색은 보랏빛 대게는 판서의 잔치에 안주로 내놓을 만큼 고급 음식이라고 했고, 조선 후기의 명필 추사 김정희는 바퀴처럼 생긴 붉은 대게의 값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했으니 대게의 명성은 조선시대를 거쳐 고려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게는 무엇보다도 다리 맛이 으뜸인데 어느 정도 맛있나 하면 당나라 이태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고려의 시인 이규보의 '찐 게를 먹으며'라는 시에서 그 맛을 엿들을 수 있다. 게 다리 살이 눈처럼 희고 엿처럼 단데 오른손을 다쳐도 왼손으로 먹을 수 있어 좋고,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다친 손이 아픔 따위는 느끼지도 못하니 게 다리 살을 안주 삼아 마시는 술 한잔이야말로 진정한 의사라고 노래했으니 게다리야말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맛이다.

그런데 대게 중에서도 진짜 맛있기로는 해각포(蟹脚脯)가 별미라고 했다. 해각포는 대게의 다리를 바짝 말린 것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맛이지만 광해군 무렵의 인물인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삼척에서 나는 대게는 크기가 강아지만 한데 포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서적인 '해동죽지'에도 게다리포는 영해의 별미로 달고 기름지며 부드러워 세상에서 그 맛을 일품으로 친다고 적혀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하나같이 동해안 대게를 먹을 때 최고의 별미로 꼽았던 것이 해각포였는데 대게의 고장인 영덕을 비롯해 해안마을의 현지 주민들 말이 예전에는 자주 먹었지만 지금은 만드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떨어진 대게 다리를 말려서 나름대로 해각포를 만들어 먹었더니 그 맛이 과연 나쁘지 않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쉰 살 넘었는데 아직도 노총각 내년에 양띠생과 연분 생길 것

철부지1110 남자 63년 8월 25일 음력

Q 쉰 살이 넘은 노총각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도 궁금합니다. 또 이름(바꿀 이름:성재)이 안 좋다며 바꾸라는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 앉은 자리가 추우니 자신을 생(生)해주는 화기(火氣)를 불러와야 하는데 주변 환경이 차갑기만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에 꼼꼼한 성격이지만 간혹 과격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참고하세요. 결혼은 2015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며 양띠생과 연분이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구추방해(九醜妨害)하여 이성간에 혼탁상이 예견돼 가정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봉급생활을 천직으로 여기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름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 한자로 된 이름을 알아야 하므로 나중에 다시 상담 신청하세요.

원하는 직업 못찾아 전전긍긍 들뜨지 말고 후일을 도모해야

열반입성 남자 77년 10월 18일 음력 낮 12시5분

Q 대학원 수료 후 놀다가 건축설계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다니다 보면 좋은 자리가 생길 거라며 참으라고 합니다. 직업운과 결혼운이 궁금합니다.

A 만약 결혼했다면 2015년에 이별입니다. 미혼이므로 2015년 9월에 사람을 만날 것이나 운세는 미약하게 들어오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논밭을 가는 소'의 형상으로 고지식한 면이 있으나 뒤가 무른 편이어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며 고집이 있고 욱하는 기질과 거친 언행을 보일 때가 있으니 자신을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생일지에 재고(재물의 창고)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므로 배우자 자리에 금전운이 좋습니다.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들떠있으니 막연한 기대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 차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6일 (음 12월 1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믿었던 사람이 은혜에 보답한다. **60년생**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은 기다리지 마라. **72년생** 재운 열려 수입이 는다. **84년생** 데이트는 야외로 가는 게 좋다.

49년생 지난 일은 빨리 잊을수록 이익. **61년생** 원하던 소식 듣게 된다. **73년생** 상사가 바뀌면 일하는 스타일도 바꿔라. **85년생** 술자리가 길면 실수가 생긴다.

50년생 이불 덮고 혼자 웃을 일 생긴다. **62년생** 움직이는 일은 자제하는 게 좋다. **74년생** 덮어버리고 싶은 실수 생길 수 있다. **86년생** 이미지 개선에 신경 써라.

51년생 집안일은 새롭게 시작할 것. **63년생** 욕심이 생겨도 할 일만 하라. **75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87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52년생 자식 자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변수가 많으니 낙관하지 마라. **76년생** 능력 밖의 일엔 욕심내지 마라. **88년생** 구직자에겐 희소식이 있다.

53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할 것. **65년생** 자손 때문에 큰 성취감 생긴다. **77년생** 칭찬이 쏟아질 때 더욱 겸손할 것. **89년생** 마음을 흔드는 이성과 마주한다.

42년생 실수 빨리 인정하면 불이익 막는다. **54년생** 선의의 거짓말도 잘하면 약. **66년생** 딸이 미인이어야 좋은 사위 얻는다. **78년생** 고전하더라도 끝까지 가라.

43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잡아라. **55년생** 걱정한 일은 전화위복. **67년생**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기에 지출도 는다. **79년생** 최선을 다하면 행운도 찾아온다.

4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6년생** 못마땅해도 관례 무시하지 마라. **68년생**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프게 한다. **80년생** 상사에게 따질 땐 예의를 지켜라.

45년생 말을 앞세우면 신뢰만 추락. **57년생** 투자한 곳에서 이득 생긴다. **69년생** 이미 결정한 일은 고민하지 마라. **81년생** 제안이나 발표에 박수갈채 쏟아진다.

46년생 배우자와 외출하니 즐겁다. **58년생** 편안하려면 명분에 얽매이지 마라. **70년생**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이롭다. **82년생** 능력 밖의 일엔 눈길도 주지 마라.

47년생 가족들 배려에 신경 써라. **59년생** 묵묵히 땀 흘리면 박수 쏟아진다. **71년생** 시기하는 사람 많으니 언행 신경 써라. **83년생** 능력 발휘할 기회 찾아온다.

브라질 입성 태극전사 세가지 갖춰라

홍명보호 생존경쟁 스타트

1 경쟁보다 배려 '원팀' 강조
2 미국 전훈 전 컨디션 UP
3 공인구 '브라주카' 적응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첫 전지훈련지이자 월드컵이 열리는 '결전의 땅'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개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월드컵 본선에서 베이스캠프로 삼을 버번 이구아수 호텔에 짐을 풀고 현지 적응 훈련과 함께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전지훈련을 위해 15일 브라질 포스두 이구아 공항에 도착해 현지 취재진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부터 브라질과 미국에서 3주간 전지훈련을 치른다. /연합뉴스

◆경쟁보다 동료애

국내파 선수들의 무한 경쟁이 예고된 전지훈련이지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가장 강조한 것은 동료를 향한 배려심이었다.

이번 훈련에는 유럽파 선수들을 제외하고 K리그(20명), 일본 J리그(2명), 중국 슈퍼리그(1명)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했다. 본선에 앞서 처음이자 마지막 장기 해외 전훈이다. 국내파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서 홍 감독의 눈도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홍 감독은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상하지 않고 같은 선수들끼리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축구 철학인 '원팀'을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갖는 첫 훈련인 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는 "선수들 대부분의 컨디션이 70~80% 수준이다. 완벽하게 경기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면서 "미국에 가기 전에 컨디션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고 전술적인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16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대표팀은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내달 1일까지 코스타리카(25일), 멕시코(29일), 미국(1일)과의 세 차례 평가전을 이어간다.

◆공인구 적응기

홍명보호는 이번 전지훈련부터 공인구 브라주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번 전지훈련을 위해 브라주카를 공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팀은 나이키와 맺은 후원 계약상 이번 전훈에서 아디다스가 만든 브라주카를 쓸 수 없지만 전훈 직전까지 나이키와 협의를 한 끝에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의 기량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고 나이키가 암묵적으로 브라주카 사용을 용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급 대표팀 선수들은 2019년까지 나이키 로고를 새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훈련에 사용하는 공 역시 나이키 제품을 써야 한다. 당초 대표팀은 본선 한 달 전인 5월 최종 훈련에서나 나이키의 허락을 받아 브라주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일찍 새 공인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마지막 소치 올림픽 즐기겠다"

2연패 도전 김연아 "지난 두 대회보다 자신감 더 생겨…'클린 연기' 하고파"

김연아(24)가 마지막 축제를 홀가분하게 즐기겠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15일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빙상 대표선수단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대회도 두 차례나 출전했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때가 됐다"며 "지난 두 번의 대회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고 '피겨 여왕'의 여유와 당당함을 드러냈다.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한 김연아는 지난달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와 이달 초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 종합선수권대회에서 204.49점과 227.86점을 각각 획득하며 올림픽 2연패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달리 "어떤 결과든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 경기만 끝나고 나면 선수 생활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4년 전 올림픽 때와 다른 점이다. 그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다음 경기와 다음 훈련을 걱정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시원할 것 같다"며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클린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고 현역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김연아가 15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빙상국가대표 선수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틀연속 골…역시 '리틀 메시' 이승우

'한국 축구 기대주' 이승우(16·사진)가 이틀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카데테A(14~15세 팀)에서 뛰는 이승우는 15일 카타르 도하의 어스파이어 아카데미 풋볼 필즈에서 치러진 알 카스 인터내셔널컵 가시와 레이솔(일본)과의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2로 뒤진 후반 19분 만회골을 넣었다.

전날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1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이승우는 이날 또 골을 넣어 해결사 기질을 과시했다. 이승우의 활약 덕택에 바르셀로나는 가시와 레이솔과 2-2로 비겼다.

/양성운기자

'출국' 추신수 "작년 느낌 쭈욱~"

'추추 트레인' 추신수(32)가 본격적으로 2014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톱타자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추신수가 스프링캠프와 2014년 정규리그 대비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을 앞두고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공 하나마다 집중했던 지난해 느낌을 이어가면 올해도 분명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다음달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텍사스 선수단 전체 훈련을 앞두고 한 달 남짓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그는 또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이 목표라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추신수가 15일 오후 가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딸 소희양을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3점슛만 14개 꽂은 오리온스, 인삼공사 대파

남자 프로농구 창원 LG가 서울 SK를 꺾고 공동 2위에 올라섰다.

LG는 1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SK에 88-75 승리를 거뒀다. LG는 SK와 23승11패로 동률을 이루며 팀 순위에서 한 단계 뛰어올랐다. LG 데이본 제퍼슨이 33점 17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문태종이 13점, 김영환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3점으로 뒤를 받쳤다.

고양 오리온스는 안양 KGC인삼공사를 100-74로 꺾었다. 오리온스는 전정규(4개)·이현민(3개) 등이 쏘아올린 3점포 14개가 상대 림에 꽂히며 100득점을 채웠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5일

팀					합계
SK	22	6	23	24	75
LG	17	16	26	29	88
오리온스	29	25	21	25	100
인삼공사	16	15	25	18	74
우리은행	22	8	25	14	69
KDB생명	16	17	14	13	60

프로배구 전적 15일

팀			팀
현대건설	3	0	흥국생명
한국전력	0	3	대한항공